



# 여수 '빅오 쇼' 다시 본다

## 박람회재단 태풍피해 복구...13일부터 공연 재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최고 불거리었던 '빅오(Big-O)쇼'가 이달부터 다시 선을 보인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28일 "태풍으로 전기 등 설비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던 빅오 시설의 복구공사를 최근 완료, 이달 13일부터 빅오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빅오쇼는 박람회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높이 47m의 거대한 원형구조물인 빅오와 분수, 레이저 투사, 음향이 각종 공연과 함께 어우러진 박람회 당시 최고의 불거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 빅오 시설물 중 전기·기계 설비 일부에 침수피해가 발생, 복구공사에 들어가면서 지난 4월20일 박람회장 재개장에도 불구하고 빅오쇼는 레이저 투사 등 부분적 불거리만을 제공하고

완전한 공연은 불가능했다.

새로 선보이는 빅오쇼는 시스템 점검을 위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음악을 결들인 멀티미디어 쇼 '몽키쇼', 어린 소녀의 바다 여행을 따라가는 '하나쇼'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자유석(S석) 1만6000원, 지정석(P석) 2만원이다. 단 이달 13~19일은 그랜드 오픈 기

념으로 반값에 입장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새로 공개될 빅오쇼의 해상분수는 세계적 분수회사가 설계한 국내 유일의 해상분수로 쇼의 고급스러움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빅오쇼는 세계적 권위의 THEA(The Theme and Entertainment Association)로부터 '2012년 올해의 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불법 주차 '견인' 광양시 이달부터

광양시는 30일 "1일부터 주유도로 및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단속을 단호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는 불법주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견인차량 확보와 견인차보관소 설치, 인력확보 등을 마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를 위해 계도 위주로 견인단속을 실시해 왔다.

시는 관내 12개소에 설치된 불법주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를 통해 시청 내 교통질서합성센터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차량통행에 현저히 방해하거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견인단속을 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부 압제 운전자에게 의한 부정차금지구역 내 주차, 모서리주차, 대각선주차, 이중주차, 인도주차 등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고흥군, 치어 1700만마리 방류

고흥군이 수산자원 감소를 우려해 권역별 해역 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이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부어업인 단체와 고흥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받았

다"고 밝혔다(사진). 군은 올해 치어 방류에만 3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16일에는 전남 국제갯벌연구소에서부터 새우유인 대하 어자만 해역에 방류했으며, 이날 어업인 단체와 고흥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받았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 용방농공단지 친환경기업 유치

## 구례군

시기동 구례군수(사진)가 민선 5기 들어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용방농공단지 내 친환경기업의 유치다. 산업기반이라고는 전무했던 구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용방 농공단지는 전국 최초로 농공단지 전체 면적을 분양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단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의 기업유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산지유통센터(APC)와 친환경 쌀 제분공장도 건립, 친환경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조직을 통합하는 '구례군유통주식회사'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산수유클러스터사업, 우리밀명품화사업, 지리산나물사업, 야생화응답합사업 등 특화된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2013국가브랜드



## 향토자원 전략사업 육성

## 각종 사업예산 부족 '고심'

대상', '2013탑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구례군의 브랜드 가치, 대외 인지도 등이 향상됐다.

전국여자친화장사제품대회 등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 스포츠 인프라의 대외 경쟁력과 관광서비스 수용태세를 강화했다.

군 발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귀촌 전담조직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마을·한옥 행복마을 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등 도시민 유치를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특색있는 차별화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산수유문화관과 산수유사랑공원 등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구례산수유꽃축제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사도) 설치 문제, 인구 3만 이하로 전남 최소 기초지자체 전략,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 예산 부담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서 군수는 "남은 1년은 마무리하는 해로 '미래가치의 더 큰 구례'를 위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보성군 6일부터 '토요장터' 개장

보성군은 30일 "녹차밭 보성향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토요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요장터는 보성차밭과 한국차박물관, 울포솔밭해변 등 지역의 관광 명소를 찾는 관광객과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휴먼 문화 공연

과 천연염색, 점토를 활용한 그릇 만들기,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문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노래자랑, 즉석 경품, 할머니 장터 및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전북

# 단신

# 힐링의 모범 '부안 마실길'

## 갯벌체험·캠핑·먹거리 갖춰 명품길 각광

부안마실길이 사계절 언제든 탐방하기 좋은 명품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를 보낼 최적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

부안군은 3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부안마실길 내 해수욕장과 캠핑장 등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천 장소는 부안마실길 2코스(노루목 상사화길)의 고사포해수욕장 송림 숲과 3코스(적벽강노을길) 격포야영장, 5코스(모항갯벌체험길) 모항해수욕장 등으로 주말과 주일의 경우 캠핑족과 마실길 탐방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특히 고사포해수욕장 송림 숲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캠핑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캠핑족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좋은 장소다. 2km에 이르는 백사장이 펼쳐

져 있고 방풍을 위해 심어 놓은 300m 규모의 넓고 긴 송림이 장관을 이루는 장소로 캠핑장으로 제격이다. 캠핑에 필요한 화장실과 개수대, 샤워장 등이 갖춰져 있다.

또 격포야영장은 폭신한 잔디밭 위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변산반도의 진주 모항해수욕장 역시 최고의 장소다. 아담한 백사장과 송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만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캠핑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해수욕장과 캠핑장 등은 부안마실길 탐방 전·후에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고 해산물 등 각종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휴가지로 좋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캠핑장의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부안=정재용기자 jyj0681@



## 담벼락의 변신

지난 28일 순창군 동계면 소재지와 구송정 유원지 일대에서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벽화 그리기의 주제는 감, 밤, 매실 등 지역특산물과 주민의 일상이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세계 석학들 순창서 장수 논하다

## 郡, 초청세미나 성료

노령화 대비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세계적 석학들이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순창을 방문했다.

순창군이 디지털 노령화를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20차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디지털 에이징(건강장수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20차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며, 이 대회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 40여명이 국내 대표적 건강100세 도시인 순창에서 노령사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됐다. 실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도있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도록 가족관계 등 관계망 연구에 중점을 둔 세대 연구팀과 노화·의료에 중점을 두는 100세연구팀으로 나누어 20명씩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지난 28일 오후에는 디지털 에이징을 주제로 삼성종합기술원 박사학위 대학 아스유기 곤도교수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장수 연구에 대한 교양강좌도 개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세계적 학 초청 세미나를 통해 순창의 건강 100세 브랜드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농촌 고령화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템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 친환경농업단지 '웰컴센터' 준공

고창군은 30일 "지난 27일 2009년부터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갈곡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세부사업인 웰컴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웰컴센터는 고창 첫 관문인 성내면 조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654㎡에 2층 건물로 한우관매장, 지역특산물 판매·홍보관, 영농교육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및 백영중 흥덕농협장, 행정과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웰컴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고창 갈곡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시행기관인 흥덕농협은 이번 시설 준공을 위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정읍시, 14개 자활근로사업 41억원 투입

정읍시는 30일 "올해 자활근로사업에 41억원을 투입,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환경정비와 복지도우미 등 시 직영사업에 17억원, 민간위탁사업에 2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자활근로 민간위탁기관에는 정읍

지역자활센터, 정읍사회복지관, 정읍희망복지센터, 양회전문식품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서비스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일자리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316명에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 작년 수출 3029만달러...전년비 22% 증가

부안군과 정읍상공회의소는 30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안지역 수출은 3028만6000달러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479만9000달러 보다 22.1%나 증가한 규모다. 군은 특히 값이 부안지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김을 생산

하는 삼해상사(주)에서만 지난해 164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부안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전년도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죽엽과 뽕주를 비롯한 뽕 관련 가공제품, 수산물 가공제품 등이 부안 수출 증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yj0681@

# 전주시 '주민과 함께 하는 품남문 한마당 잔치'

'주민과 함께 하는 품남문 한마당 잔치'가 품남문상인회(회장 김홍기) 주관으로 지난 28일 오후 7시에 품남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중 하나로 (사)아리랑문화예술원의 무용, 판소리, 각설이 타령 공연과 함께 초

대가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잊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 3월29일 처음 시작된 4번째로 열린 품남문 한마당 잔치는 오는 10월까지 개최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전북교육청, 8~12일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험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 시스템에 등재한 후 채용·관리를 원활히 하려는 제도다.

시험은 기간제교사 자격과 인성을 검증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실시한다. 원서는 7월 8~12

일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시험은 30일 1교시 전교, 2교시 교수·학습지도안을 치른다.

합격자는 8월 8~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기간제교사 인력풀코너'에 인적사항 등을 직접 등재하면 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